

# 빅토리아시대의 주택 실내 양식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in the Victorian age

김정근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Kim, Jung Keun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UOU

key words: Victorian age, housing, interior, style

## 1. 서론

본 연구는 빅토리아 시대의 주택 실내에 대해 그 기본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혀봄으로써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빅토리아 주택 실내의 표현 특징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주택 내외부의 요소들의 특징과 관련성을 통해 빅토리아 양식의 경향을 재규명 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의 방법은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 2. 시대적 배경과 일반적 특징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주택 실내 양식의 변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낭만주의의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였다. 낭만주의는 이념보다 현실에 밀착하여 형식보다 표현을 선행시켰으며 인간과 자연의 융화를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 시대에는 민족성과 고딕양식을 지향하였고 단정한 형태보다는 산뜻하고 강렬한 색채를 우선하는 부드럽고 생생한 표현을 추구하였다.

둘째, 산업혁명으로 기계 기술이 발달이 이루어졌고 1851년 영국에서 최초의 국제적 대 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전시회를 통해 가정용품과 주거건축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보급되었다. 여기서 대량생산된 제품들로 인해 중산층도 값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중산층과 신흥 부유층 및 자력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은 부와 성공을 과시할 수 있고 귀족들의 저택과 비교될만한 대저택을 요구하였고 지위에 걸맞는 생활을 위해 실내는 화려하게 꾸미고자 하였다.

넷째, 고고학 연구를 바탕으로 역사주의가 유행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제에 따라 역사적 양식을 혼합 사용하는 절충주의(Eclecticism)경향이 유행하였다.

다섯째,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환경오염으로 인해 공간 내의 위생을 중시하게 되어 주택 실내는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 3. 빅토리아 시대의 주택과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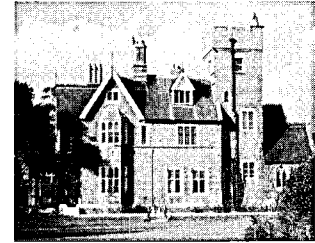
### 3-1. 빅토리아 시대의 주택

빅토리아 시대 주택은 건축가의 창의적 전원주택과 도시의 타운하우스의 유형이 대표적이다.

도시의 주택은 초기에 반분리식(semi-detached)빌라와 같이 타운하우스가 발달하였고 1830년대와 40년대에는 이탈리아식 단독주택형의 빌라, 튜더양식의 디테일을 적용한 벽돌 빌라가 유행하였다.



<그림 1> 1850년대 타운하우스 양식으로 유행한 이탈리아식 주택.



<그림 2> 퓨킨 디자인의 주택 벽돌과 베이윈도우, 중세 성채로 장식된 주택은 자유로운 구성과 불규칙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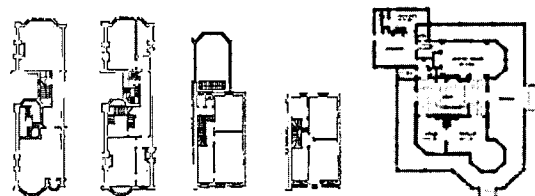
전원주택은 하프 팀버와 조적조를 혼합해서 사용한 시골의 고딕 복고풍이 유행하였다. 주택의 전면은 비대칭적이고 불규칙한 외관을 갖고 있으며 붉은 벽돌과 하얀 칠의 목재를 장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창문은 베이윈도우를 설치하고 좁고 길다란 유리창을 불규칙하게 배치하였다. 또한 중세의 성채, 시계탑, 작은 장식탑(turrets)이 설치되어 중세적 특징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 3-2. 빅토리아 시대의 실내

빅토리아 시대 실내 역시 역사적 유대를 갖는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거나 테마 방식으로 응용되었으며 여러 양식을 중복하는 절충주의 방식에 의해 표현되었다. 실내에는 직물로 만든 소품과 그림, 기념물로 장식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실내의 요소별 구체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3-2-1. 공간 구성

실내공간의 구성은 비대칭적이며 불규칙하였으며 원형이나 다각형의 타워가 추가되었다. 실내 공간은 주로 전면에 거실, 팔러(parlor), 홀 등의 사회적 공간을 두고 후면에는 가족의 아침식사를 위한 가족실(morning room)을 설치하였고 음악실, 당구실, 흡연실, 서재 와 같이 오락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분리된 공간과 어린이를 위한 보육실 및 부엌과 욕실 등의 다양한 공간들이 설치되었다.



<그림 3> 빅토리아시대의 도시주택과 단독주택 평면

### 3-2-2. 실내 구조적 요소의 특징

벽면은 데도(dedo)나 픽취 레일(picture rail)의 높이를 기준으로 분할하거나 문과 벽을 따라 몰딩으로 강조하였다. 계단은 중앙이 트인 계단과 돌음계단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고 난간은 각진 형태를 띠었다. 창문은 스테인드글라스를 사용하고 문에는 상단에 그림이나 장식을 위한 패널을 붙이기도 하였다. 벽난로는 전면과 내부를 별도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양식이 채택되었으나 실내의 비중에 따라 대리석이나 목재를 선별 사용하였다.



<그림 4> 고딕, 르네상스 무어 양식을 절충하여 장식한 입면은 데도, 픽취레일로 벽면 분할



<그림 5> 패널장식의 계단상 중앙부가 트인 계단에는 크고 각진 엄지기둥으로 강조.

### 3-2-3. 실내의 마감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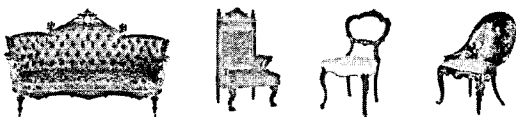
기술적 발전이 뒷받침하게 됨에 따라 주택 실내에는 빠르고 쉽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축재가 사용되어 마감의 편이성이 증가되었다. 1841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벽지가 대량생산됨에 따라 과거의 직물과 플라스터의 벽 마감방식은 벽지로 대체되었고 링크러스터(Lincrusta)와 아나글리파(Anaglypa)와 같은 기능성 벽지도 등장하였다. 짙은 나무에 칠한 패널과 진홍색의 화려한 벽지는 빅토리아 양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마감 방식으로 강한 대비를 주며 공간에 활력을 주었다.

### 3-2-4. 가구배치와 양식

주택 실내에서 가구는 방별 주제나 기능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 양식의 가구를 설치하였고 한 방에서도 절충적인 방식으로 배치하였다. 엘리자베스, 르네상스, 고딕 양식 뿐 아니라 18세기 아담의 영향이 지속되어 고전양식의 가구를 포함한 복제품과 저급 가구가 대량생산되었다.

안락함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합판에 스프링과 쿠션을 풍부하게 넣어 만든 편안한 소파가 제작되었으며 세트로 사용하였다. 실내는 전시 효과를 고려하여 많은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함으로써 실내가 짙 찬 듯이 보였다.

빅토리아 양식 의자는 일반적으로 등받이가 높고 다리가 짧고 곡선적인 형태가 특징이었다. 가구의 재료는 마호가니(mahogany)나 새틴우드(satinwood)를 주로 사용하였고 뽀뽀에 마쉴(Papier mache)의 가구, 금속재로 만든 침대, 대나무로 만든 의자나 미국풍의 유행에 따른 자개 가구가 있다.



<그림 6> 빅토리아 양식의 소파와 의자

### 3-2-5. 실내 장식 특성

빅토리아 시기에는 도시의 공기 오염으로 실내는 두껍고 무거운 직물로 덮어씌우는 장식이 유행하였다. 창문에는 솔로 장식한 커튼으로 뒤덮듯이 장식하였을 뿐 아니라 거실의 벽난로, 니치, 거울, 가구, 문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요소에 직물로 장식하였다 이시기 조명기구류는 촛대가 기본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오일, 가스과 전기를 사용하는 변화가 나타났고 대표적인 조명기구로는 둥그런 유리 저장고를 가진 아르강(Argang)등이 있다.

### 3-2-6. 부엌과 욕실의 설비

빅토리아 후기에는 가정내 부엌과 욕실 설비가 발달하였으며 무엇보다 주철의 발달로 주철 오븐이 제작되어 가정내 요리설비의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1870년 이후에 상층부에 상수도가 배관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주물용 세면기와 목욕기구도 나타났다. 세면대는 주철로된 후레임에 마호가니로 테두리를 하였고 그 위에는 도자기 불(bowl)을 설치하였다. 재료는 대리석 상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내 번기는 일반화되지 않았다.

## 4. 결론

서양의 대표적 빅토리아시대 주택 실내에 대한 기본 특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주택과 실내는 낭만주의와 자연주의 사조의 영향으로 역사주의와 절충주의가 유행하였다. 가족의 생활양식과 편이성의 개인적 가치 추구를 위해 기술적으로 발달한 다양한 신재료와 마감방식으로 실내를 조성하였다. 특히 빈번한 사회적 교류로 인해 실내는 과시적이고 화려한 표현을 하였으나 자유로운 표현 속에서도 규범을 중시하여 형식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는 공기 오염과 위생문제와 같은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직물로 장식하는 방식을 배제하였고 빈번한 외국과의 교류로 인해 미국풍과 기념물과 같은 소품이 강조되는 경향으로 변화되어 양식의 시대성과 합리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빅토리아 시대의 표현 경향을 통해 주택 실내는 역사적 양식의 모방과 절충이라는 표면적 특징에 의한 규명에 대해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당시의 사회와 규범을 고려하는 양식이라는 점에 있어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정근 홍형욱, 서양의 주택과 실내의 양식, 서울: 경춘사, 2002
-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미술선서 67, 서울: 열화당, 1993
- 배만실, 장식미술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 Calloway, Stephen, Element of Style, N.Y.: Simon and Schuster, 1991
- Casesasca, Ettore (ed.) Quigly, Isabel(Trans.), History of the House, London:William Collins Sons & Co., Ltd., 1971